

‘상대적 열세’, 실력으로 극복...3위 수성 ‘총력전’

KIA, 주중 NC원정·주말 홈KT전

NC戰 선발 ERA 7.14·KT戰 경기당 선발 이닝 최하위...선발 관건 네일, 두 차례 등판 유력...김도영 40홈런 ‘-1’ 최연소 기록 ‘초읽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3위 수성에 나선다. 이번 주가 중요하다. 상대부터 만만치 않다.

KIA는 1일부터 창원에서 리그 6위 NC와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주말에는 광주에서 2위 KT를 만난다.

31일 현재 KIA는 115경기 63승 50패 2무(승률 0.558)로 3위다. 1위 삼성과 55경기 차, 2위 KT와 5경기 차다. 4위 LG와는 승차가 없다. 승률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다. 5위 두산과도 2경기 차에 불과하다.

분위기는 좋다.

KIA는 지난주 홈에서 3경기만 치렀다. 우천

으로 3경기가 취소됐다. 롯데전 2경기과 SSG전을 모두 잡으며 3연승을 내달렸다.

이제 9월의 첫 고비다. 천적을 넘어야 한다.

KIA는 올 시즌 NC에 2승 7패로 크게 밀렸다. KT를 상대로도 3승 6패에 그쳤다.

두 팀을 상대로 고전한 데는 공통점이 있다.

선발이 버티지 못했다.

특히 NC전은 경기 초반부터 꼬였다.

NC전 선발 평균자책점은 7.14로 리그 최하위다.

1-3회에만 피홈런이 8개로 9개 구단 중 가장 많다.

이 구간 피홈런율은 0.415, 피OPS는 0.993이다.

모두 리그에서 가장 높다. 볼넷도 22개로 최하다.

타선도 힘을 쓰지 못했다.

NC전 팀 타율은 0.233이다. 득점권 타율은 0.145로 리그 최하위다.

초반부터 선발이 흔들리고 방망이까지 막혔다.

상대전적 열세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NC가 최근 살아난 점도 경계해야 한다. 지난주 2패 뒤 3연승을 거뒀다.

시즌 팀 타율은 0.275로 리그 3위다.

초반을 버텨야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

주말 KT전도 비슷하다. 선발이 문제다.

KIA의 KT전 선발 평균자책점은 5.49로 9개



KIA 김도영이 지난달 26일 열린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39호 홈런을 터뜨린 후 덕아웃에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프로야구 팀별 순위

〈8월30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삼성	68	44	3	0.607	0
2	KT	66	43	3	0.606	0.5
3	KIA	63	50	2	0.558	5.5
4	LG	64	51	1	0.557	5.5
5	두산	61	52	4	0.540	7.5
6	NC	51	58	2	0.468	15.5
7	롯데	50	61	2	0.450	17.5
8	한화	49	62	3	0.441	18.5
9	SSG	48	65	5	0.425	20.5
10	키움	42	76	3	0.356	29

구단 가운데 8위다. 특히 경기당 선발 소하 이닝이 4.56이닝으로 가장 적다. 평균적으로 5회도 채 우지 못했다.

NC전에서는 초반에 무너졌다. KT전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결국 이번 6연전의 관건은 선발이다.

반면 타선은 제 몫을 했다.

KIA의 KT전 팀 타율은 0.290이다. 득점권 타율은 0.329로 리그 3위다.

마운드가 버텨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번 주에는 잠실에도 눈길이다.

LG와 두산이 주중 3연전에서 맞붙는다. KIA를 쫓는 두 팀의 맞대결이다.

서로 발목을 잡을지, 한 팀이 치고 올라올지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KIA가 승수를 쌓아야 한발 앞서갈 수 있다.

반대로 주춤한다면 3위 자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상대전적 열세를 지을 차례다.

그 선봉에 ‘에이스’ 네일이 있다.

이번 주 두 차례 등판이 유력하다. 올 시즌 NC전에선 승리 없이 2패를 기록했다. KT전 성적은 1승 1패다.

김도영의 대기록 도전도 관심사다.

리그 홈런 1위다. 40홈런까지 단 1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오는 6일까지 40홈런을 달성하면 KBO 역대 최연소 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3위 경쟁과 대기록 도전이 맞물린 한 주다.

/주흥철 기자

빛고을서 펼쳐진 전국 검도인 ‘화합·교류의 장’

빛고을에서 펼쳐진 전국 검도인들의 열정과 화합의 무대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검도회가 주관한 ‘2026 광주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검도대회’가 지난달 30일 광주서석중·고 체육관에서 전남·광주 9개 팀을 비롯해 전국 각지 검도 동호인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인전 초등(중·고학년부), 청소년부(남·여), 청장년부(남·여), 중년부(남·여)와 단체전 6개 부문으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열띤 승부를 펼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검도 정신을 실천하며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전국에서 참가한 선수 및 지도자 여러분을 환영하고 대회를 위

‘2026 광주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검도대회’ 성료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석중·고 체육관에서 열린 ‘2026 광주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검도대회’에서 내외빈들과 검도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해 애써주시 광주시검도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검도가 시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더욱 발전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검도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광주시체육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지난해 열린 ‘2025 회장배 빙상 대회’ 경기 모습.

〈광주시빙상경기연맹 제공〉

불모지 광주 빙상, 비상을 꿈꾸다

오는 5일 ‘2026 광주빙상연맹 회장배 대회’...쇼트트랙·피겨 100여명 참가

동계스포츠 불모지 광주에 꿈과 희망의 신흥 탄이 올랐다.

광주시빙상경기연맹이 오는 5일 광주실내빙상장에서 ‘2026 회장배 빙상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종목에 유치부를 비롯해 초·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정과 투혼의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은 초등부를 비롯해 중·고·대학·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며, 선수들의 수준과 강습 경력 등을 고려해 그룹을 편성해 경기를 진행한다. 피겨스케이팅도 유치부부터 초·중·고등부 및 일반부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해 생활체육 중심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광주시빙상경기연맹은 그동안 생활체육 활

성화와 선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회와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회장배대회를 계기로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시민들이 빙상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나이가 단순히 생활체육 대회에 그치지 않고, 유소년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성장해 전문 선수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엘리트 선수 발굴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박병석 회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시체육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국동계체전 빙상 종목 개최를 추진하고, 광주 빙상 발전을 위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함께 우수한 엘리트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장흥FC, ‘제천의병 전국 중등축구’ 정상 우뚝

결승서 경기구리부양FC 2대1 승
김상훈, 대회 최우수선수상 수상

장흥FC U-15가 2026 제천의병 전국 중등축구대회에서 정상에 우뚝 섰다.

장흥FC U-15는 지난달 28일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야간 경기로 펼쳐진 경기구리부양FC U-15와의 의림그룹 결승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장흥FC는 서울경신중(0-0), 서울배재중(0-0)과 무승부를 기록한 뒤 경기과천문원중(3-0), 서울석관중(2-1), 경기FC모현(2-1), 경남합천FC(3-0)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뜨거운 투혼으로 무장한 장흥FC는 결승에서 탄탄한 조직력으로 맞선 경기구리부양FC를 상대로 전반 19분 진시운의 선제골과 후반 46분 김상훈의 추가골로 경기를 주도했다. 종료 직전 한 골을 내줬지만 경기는 2대1, 승리로 막을 내렸다.



지난달 28일 열린 2026 제천의병 전국 중등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장흥FC U-15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팀의 우승 주역인 김상훈은 대회 최우수선수에 뽑혔고, 진시운은 공격상, 정도훈은 수비상을 각각 수상했다.

탁월한 지도력으로 예선부터 결승까지 7경기에서 5승2무, 무패 우승을 이끈 김동균 감독은 최우수 감독에 선정됐다.

장흥FC는 ‘2025 전국 중등 축구리그 전남권

역 리그대회’에서 U-14, U-15 부문 모두 1위에 이어 ‘2026 광주전남권역 전국중등리그 축구대회’ U-15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전남 중등 축구 최강자다.

한편, 전국 68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청풍그룹, 의림그룹으로 나눠 각각 진행됐다.

/박희중 기자

서창완,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서창완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열린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서창완은 지난달 30일 중국 구이양에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UIPM) 2026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펜싱과 장애물 경기,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천576점을 따내 마테이 루케시(체코·1천586점), 에고르 그로마드스키(러시아·1천581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그동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과 계주

에서 여러 차례 입상했으나 개인전에선 메달이 없던 서창완은 처음으로 개인전 메달을 목에 거는 기쁨을 누렸다.

올해 5월 불가리아에서 열린 시즌 두 번째 월드컵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던 그는 이번 대회 혼성 계주에서 성승민(한국체대)과 우승을 합작한 데 이어 두 개의 메달을 쟁겼다.

이날 개인전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입상한 서창완은 남자부 간판으로 입지를 다지며 다음 달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전망도 밝혔다.

/연합뉴스